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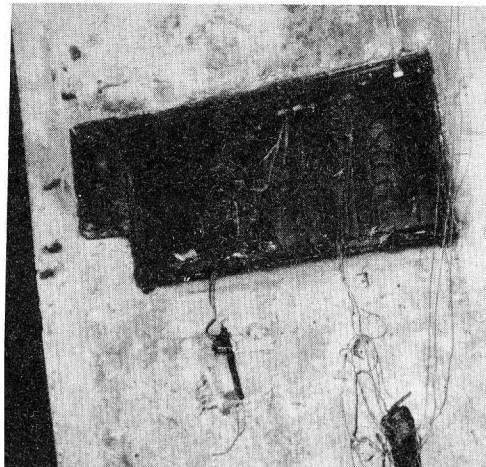
特殊建物 火災現況

이번 호에서는 安全點檢時 자주 볼 수 있는 狀況으로서 간단한 發火關聯物質 또는 施設의 管理·取扱不注意에 의하여 일어난 火災 몇 가지를 紹介한다.

이들 各原因에 나타난 事故前의 狀況에 대해서는, 그 危險程度의 判斷에 있어서 點檢者인 우리 自身도 소홀히 다루기 쉬운 데 비하여 이들 原因에 의한 火災件數는 全火災件數의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勘案할 때, 모든 경우에서 그렇듯이, 사소한 點檢結果라도 建物關係者에게 반드시 알려줄 必要가 있음을 再三 느끼게 한다.

1. 대덕빌딩

- 소재지: 서울 특별시
- 화재발생일: 1982. 12. 9
- 용도: 복합건물(5층)
- 피해액: 600 만원
- 화재원인: 배선 용량 초과(콘센트 多重 接續)
- 발화장소: 1층 약국
- 피해부분: 동 건물 1, 2층 全燒 및 3, 4, 5층 일부 燒失
- 화재발견: 약국 임대자
- 소화작업: 소방펌프차 2대 및 지휘차 1대 출동 주수소화
- 평가: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여러 가닥의 電線을 接續·配線하여 Show case 등의 照明 등에 사용함으로써 “過負荷로 인한 熱發生→絶緣破壞(短絡)→可燃物(壁紙)에 引火→延燒”의 극히 상식적인 火災事件임.



火災를 誘發시킨 多條分岐의 現場(1층약국)

2. 티파니 빌딩

- 소재지: 전북 전주시
- 화재발생일: 1982. 12. 21
- 용도: 복합건물(4층)
- 피해액: 43만 7천원
- 화재원인: 어린이의 장난으로 석유 난로가 넘어져서 발화
- 발화장소: 1층 양품점
- 피해부분: 발화 점포 燒失 및 他部分 일부 煙氣汚損
- 소회작업: 포말 소화기 15대 사용하였으나 소화 실패, 소경사 4개 搬入시켜 진화
- 평가: 점포, 음식점 등 특히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에서 液體燃料(石油等)를 사용하는 移動式 煖爐를 放置(顛倒危險이 큼)·使用함으로써 빚은 火災事故임.



물에 타 난장판이 된 양품점의 옷가지

3. 오성무역(주)

- 소재지: 서울 특별시
- 화재발생일: 1982. 11. 25
- 용도: 기숙사
- 피해액: 미상

- 화재 원인: 연탄재 放置로 可燃物에 引火
- 발화장소: 기숙사(3층) 침실
- 피해부분: 3층의 기숙사 용도 2 개소 중 1 개소 全燒(446㎡)
- 화재발견: 구내 식당 종업원
- 소화작업: 소방차 20여 대 출동하여 진화
- 평 가: 연탄재 등 고체 연료의 재는 항상 뚜껑이 있는 不燃材料의 통에 處理해야 함에도 이를 怠慢히 한 취급자의 放心과 管理不在로 因하여 發生된 火災事故임.



全燒現場(지붕이 내려 앉은 장면)

설마속에 화재있고

 조심속에 화재없다.